

농어촌공 동진지사, 금평저수지 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가 오는 30일 진행되는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금평저수지 및 청도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행사를 앞두고 저수지 주변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동진지사 직원들과 금구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해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낙엽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9.1*6.5)cm



농촌공 동진지사, 금구면과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는 20일 김제시 금구면과 합동으로 금평저수지 및 청도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저수지 주변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진지사 직원들과 금구면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해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낙엽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 양병대 기자 ybd3465@daum.net

(8.7*13.0)cm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금구면과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김제시 금구면과 함께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선제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지난 20

일 김제시 금구면과 합동으로 금평저수지 및 청도저수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저수지 주변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미 금평, 청도저수지 일원 수질개선 협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이번 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날 동진지사 직원들과 금구면사무소 직원들은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낙엽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을 도모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금평저수지와 청도

저수지 주변은 한층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경환 기자

(22.7*5.8)cm